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이효진

目 次

I. 서론	3. 미니멀리즘(Minimalism)
II.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가 지니는 의의	4. 에로티시즘(Eroticism)
III.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소재의 사적 고찰	V.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는 소재의 조형적 분석
IV.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와 예술적 조형성	VI. 결 론
1. 초현실주의(Surrealism)	REFERENCE
2. 팝아트(Pop Art)	ABSTRACT

I. 서론

20세기의 인간의 행동양식은 자극적이고 인공적인 매체들에서 모든 미적 창조 의 계기를 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대 양식이 무리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써의 유행도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유행이란 개인이나 소집단에서 시작하여 대중에게 이르는 현상으로써 다른 무엇보다도 복식에 있어서 유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처럼 미(美)와 추(醜)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속에서는 자기주장이 강한 부자연스러운 복식 형태도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즉 복식은 여러가지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완성된 제품은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써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용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다채로운 조형으로 표현되는 형태에서 인간의 조형의지가 크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 정신이 반영된 조형 매체라는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 중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재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단지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이 아니라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도 무원칙적이고 인위적인 요소에서 독창적인 이미지가 표출이 되며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양식으로 수렴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보다 다채로워진 소재가 디자인의 영감을 불러

* 본 논문은 1996년도 전북대학교 지원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습.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시대적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만큼 소재에서 표출되는 이미지는 예술적 조형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색가공이나 봉제가공으로 실현되어 가는 기술 혁신은 신소재 개발이나 신가공 개발로 발전하여 과거에 불가능했던 감각 표현이 패션 디자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독점영역이었던 미의 창조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여지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의 형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재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입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을 초월해서 입는 사람과 보는 사람에게 보통 입을 수 없는 것을 입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추상예술에 있어서 움직이는 오브제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복식이 만들어지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규범의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외형의 표현 자체가 다양화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패션 소재 자체만에 함축된 내적 의미를 고찰하여 예술 양식과 어떠한 조형성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복식 형태나 복식미에 대한 연구 경향은 패션 디자인을 통하여 그 시대를 영위하는 인간 생활의 정신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의 환경적 측면과의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패션 디자인에서 제시된 새로운 요소들은 미래의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지어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조형적인 측면을 조명하고자 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으로써 예술 양식 및 복식사,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석·박사 학위

논문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잡지 및 패션 사진, 슬라이드 자료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바탕을 고찰하였다.

II.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가 지니는 의의

현대 패션은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다양한 개성이 풍요롭게 조명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디자이너의 시대적 정신과 조화된 독특한 소재의 응용과 개발 및 창조와 함께 예술 양식의 조형성을 반영하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즉 현대 복식은 전시대의 과잉장식이 배제되고 소재가 가진 특성을 살려서 자연미를 표현¹⁾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소재의 다양성과 함께 형태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소재의 맛을 살린 기능적인 복식이 나타났는데 이 기능주의는 단순한 복식을 표현 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현대에 있어서 패션 디자인은 감각산업으로써 대두되면서 디자인의 다양성 못지 않게 소재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복식에 있어서 소재들은 직물만의 범위를 벗어나 펠트나 실, 깃털 그리고 나무 금속을 비롯하여 유리, 번쩍거리는 비닐, 플라스틱 폐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재료들로 그 응용범위가 무한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든지 모든 것이 패션 디자인의 소재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한 신소재의 개발로 어느 시기 보다도 다양하고 급진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표출로 새로운 창작의 장을 마련하였다. 즉 과학의 진보에 의한 신소재에 패션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감성을 병행시킴으로써 패션 디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8, p.288.

자인 향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소재에서 표출된 이미지는 예술적 조형성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질적 소재들을 조합한 부조화적인 시도들은 패션 디자인을 통해 창조적 자율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의상이 직물을 소재로 하여 몸에 맞게 재단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과거의 관념을 무시한 소재와 의상이 인체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미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흥미와 생동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의 소재에 대한 선입관을 파괴했으며 다양하고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의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창조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소재의 응용은 패션 디자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소재 창조의 원천이 되었으며, 현대인에게 있어서 패션 디자인 소재는 한 시대의 패션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²⁾으로써 간주되고 있다.

기계생산 시대의 산물인 새로운 재료의 이용과 그것들에 어울리는 새로운 기법의 응용 그리고 새로운 용도를 가진 조형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신소재들이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3) 4)}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패션 디자이너나 다른 예술가들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들은 내적 조형성을 그대로 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다양화는 남성 패션 디자인에도 그 표현범위를 넓혀줌으

로써 여성만의 이미지의 소재로 생각했던 것들이 남성복에 이용되어 단순한 디자인에서 야기되는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5) 6)}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역할은 새로운 복식미의 표현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소재의 사적 고찰

현대 패션에 있어서 소재는 문양과 질감을 통해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생명력을 한정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은 동일한 형일지라도 소재에 의해서 그 형이 가지는 조형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조형 예술에 있어서 소재의 역할은 디자이너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그 표현수단과 영역을 풍부하게 해줌으로써 고도의 조형적 감각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20세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흐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0세기 전반기는 예술 세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운동을 만들어냈으며 패션 세계는 그것에 대응하여 많은 적든 그 모든 것을 반영하였다.

1909년 파리에서 공연된 Diaghilev의 러시아 발레 성공은 Leon Bakst의 의상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의상의 기발한 테마의 소재와 선명한 색채는 서구 여성의 패션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러시아 발레단의 동방과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발레 분위기는 패션 디자인 소재에 있어서 원시 문양이나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유행

2)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Fairchild, 1990, pp.232~3.

3) 김정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p.52.

4) 横川公子, 服飾表現の位相, 昭和堂, 1992, p.180.

5) Soen Eye, 文化出版局, 1994, p.44.

6) 김경옥,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p.42.

하게 되었고 특히 패션계에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던 계기⁷⁾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20년대의 건축과 장식 디자인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Bauhaus 운동⁸⁾이 추구하였던 무장식의 단순성과 기능주의적 합목적성은 패션 디자인 분야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년대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Chanel⁹⁾은 복식에서 장식을 배제시키고 한층 더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최소표현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저지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저지는 20세기초 인위적인 실루엣과 고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식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디자이너들에게 애용되었던 소재이었다. 이 Chanel의 기하학적인 스웨터와 스커트는 입체주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1930년대에는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Elsa Schiaparelli^{10)·11)}가 니트 스웨터에 trompe l'oeil 리본¹²⁾을 표현함으로써 패션 세계를 흥분시켰는데 이것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 당시 이 예술 양식은 패션 디자인 소재에 있어서 뚜렷하고 명료하게 표현¹³⁾되었다. 그녀는 친구인 Salvador Dali의 초현실주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Dufy가 디자인한 프린트를 이용한 소재를 의상으로 제작함으로써 그 시대의 예술적 조형성¹⁴⁾을 반영하였다.

Dali의 경우는 패션 디자인에 초현실주의 영향을 강하게 미친 화가였으며, 그의 회화 작품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감각 속에서 다양한 변형과

해석으로 초현실주의의 조형성이 패션 디자인 소재에 계속적으로 활용되어 나타나고 있다.¹⁵⁾

즉 20세기 전반기 패션은 충분히 입증된 모더니즘의 단계를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쓸데없는 장식에 대한 중요와 함께 순수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의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동안 구축된 섬유업계의 발전과 미국에서 발명된 나일론은 다림질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패션 디자인 소재의 다양성에도 큰 몫을 하게 되었다.

60년대 이후 패션 디자인은 감각산업으로써 새롭게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복식은 과거의 장식적 복식이 아닌 탈장식을 위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식들이 요구되어졌다. 20세기에 들어와 그 이전까지의 인체의 왜곡과 과장, 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고자 했던 복식에서의 순수성의 추구¹⁶⁾가 60년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최소표현의 시도로 이어졌다. 김은덕¹⁷⁾은 이러한 최소표현을 패션 디자인 소재에서는 과도한 수공예적 장식을 벗어나 직물 표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순한 재질감을 표현하는 질적인 측면과 소재에 의해 인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재 및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피부 표면을 비추보이게 하는 얇고 투명한 재질로 나타나는 양적 측면으로 표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960년대는 Mary Quant와 Andre Courr-

7)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성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4, p.36.

8) Bauhaus운동 : 1919년 Walter Gropius의 주관 이래 국립건축공예대학인 Bauhaus에서 당시의 전위적인 작가들이 모여 그들의 새로운 조형 사상에 의한 기능주의 조형을 주장하였던 예술이다.

9)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Guinness Suprtlatives Limited, 1981, pp.65~66.

10) Diana 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Batsford, 1986, p.150.

11)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Batsford, 1986, pp.116~7.

12) trompe l'oeil기법 : 프랑스어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뜻. 그러나 원래의 어원은 미술 계통에서 나온 말로써 '위장·속임수 그림'이라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13) Bailey Adrian, The Passion for Fashion, Dragon's world, 1988, pp.161~3.

14) Colin McDowell, Dictiona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Frederick Muller, 1984, p.26.

15) 이선화, 20세기 전반기의 회화를 활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2, pp.53~4.

16) 조규화, op. cit., p.271.

17) 김은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p.32.

age의 미니 스커트가 등장하면서 패션의 '뉴 웨이브'^{18)·19)}를 예고하는 전환의 시대로써 복식에서도 여성해방과 유니섹스,²⁰⁾ 캐주얼화가 시도되었다. 이 때의 젊음과 자유를 갈망하던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는 인체의 과감한 노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되었던 see-through 패션 디자인 소재에는 크리스탈이나 구슬, 거울조각, 금사, 스팅클 등의 빛나는 재료를 사용하며 인체의 자연미를 깨뜨리지 않고 인체 그 자체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에로틱한 조형성^{21)·22)}을 표출하였다.

1970년대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과 더불어 영파위는 산업의 하이테크니컬한 것을 선호하면서도 반항하려는 핑크 패션 등으로 나타나는 '진보주의적 패션'이었으며 70년대 후반에 나타난 핑크는 음악이나 패션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의 표현인 핑크 패션은 새로운 것의 충격으로써 디자이너들에게 의해 표현되었던 것이다.

즉 이렇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초의 핑크 문화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젊음의 이탈은 팝싱거의 새롭고 대담한 음과 에로틱한 춤, 고도의 매력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음악은 의상과 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로 나아갔다.

그들이 입은 의상은 당시의 패션 디자인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패션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들은 최근의 고도의 산업기술 발달과 병행되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재료들인 금속이나 구슬 그리고 실과 종이, 가죽 등으로써

여기에 여러가지 기법을 조화시켜 개성을 강조하였다.

70년대 전반적인 패션 디자인 경향은 각 개인의 창조적이고 개성에 따른 미래지향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의복의 형태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채로운 소재가 사용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더욱 거칠고 왜곡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의복 소재와 그것의 변형 그리고 과잉장식의 요소를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에는 60~70년대의 반항적이고 다소 자조적인 성향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환경을 맞게 되었다. 80년대의 패션은 파리를 중심으로한 서구 패션의 전통적인 스타일과 새로운 의식 세대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뉴 웨이브 패션의 두가지 양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자유로움의 정신을 표현한 뉴 웨이브 패션 중 일본 패션 요소들은 80년대 여성 의상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23)·24)}하였다. 일본 패션의 충격시대라고 일컬어지는 80년대 전반의 이 일본 붐은 Issey Miyake, Yamamoto Yohji, Kawakubo Rei 등에 의해서 주도^{25)·26)}되었는데, 이 중 Miyake의 layered look과 wrapped look의 발전은 소재에 있어서 질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즉 소재를 가지고 매듭을 짓거나 비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해서 trompe l'oeil의 효과²⁷⁾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언제나 새로운 소재 개발을 추구하여 조형적 아트 패션을 정립해 나가는 Miyake는 니트조직을 전형적인 스포츠웨어의 스타일에 재현하여 실용성을 강조한다든지, 비대칭적 소재의 상의 점퍼와

18)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대 석사논문, 1986.

19)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현실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7, p.25.

20)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Batsford, 1986, p.227.

21) 박미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See-Through 양식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3, p.41~2.

22)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대 석사논문, 1989, pp.57~8.

23) Julian Robinson, *The Fine Art of Fashion*, Bartler & Jensen, 1987, p.199.

24)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5, pp.32~3.

25)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1, pp.60~1.

26) 문진, *op. cit.*, pp.65~6.

27) Colin McDowell, *op. cit.*, p.20.

망사 스커트 그리고 강한 색대비의 짧은 레깅스를 매치시킨다든지 하는 이색 소재의 매치와 소프트 감각의 소재에 핑크의 거친 감각의 느낌을 살린 소재를 투입시켜 새로운 감각²⁸⁾을 살렸다.

또한 그는 패션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나무와 종이, 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이 옷의 테마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서구 패션의 기존 가치관에 혁신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체로 부티의 자기해방의 선언과 함께 80년대 패션에 자유로움의 정신과 편안함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²⁹⁾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의 현대 복식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제화와 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 한가지 뚜렷한 유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스타일이 각각 독특한 사이클을 가지고 동시에 한 사회안에서 존재하며 복고풍에 있어서도 여러 시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들어서 더욱 확장된 다원화의 흐름과 함께 안티패션적이고 탈장르적인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³⁰⁾의 시도들은 하이 패션계에도 상향전파되어 주목받는 테마로써 스트리트 패션 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 되면서 일반화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90년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없앤 패션이 보다 진전이 되었으며 성차의 축소에서 생기는 복장에서는 성역할을 더욱 불명확하게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발상³¹⁾으로 패션 디자인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놓은 최근의 패션 특징은 독특한 소재의 사용에서 의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표현되고 있다.

즉 브래지어, 슬립, 가터벨트, 콜셋 등을 걸옷으

로 변형하여 복식영역간의 crossover방법³²⁾을 통하여 복식의 새로운 창작법을 시도함에 있어서 소재의 독창성은 현대 패션 디자인 영역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되고 있는 문양과 질감의 경향은 매시즌마다 고도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편안하게 입는다는 기능성 보다는 하나의 작품으로써 조형성을 강조한 다채로운 재료와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여러가지 기법 등으로 소재를 통한 복식의 예술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패션 디자인 소재의 문양 등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예술 양식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조형성을 풍요롭게 표출시키고 있다.

IV.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와 예술적 조형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예술적 조형성은 그 동안의 수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되어 옴으로써 수많은 예술 사조와 조형적인 특성이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반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예술 양식 중 특히 현대 패션 디자인에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다양한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다음의 예술 양식의 조형적 측면을 패션 디자인 소재의 질감과 문양의 측면에서 구체화시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되었던 패션 디자인은 20세기 후반(특히 90년대)의 현대 패션 작품으로 한정되었는데, 그것은 현대인이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

28) 박미선, *op. cit.*, p.41.

29) 이은정, *op. cit.*, p.59.

30) Colin Mcdowell, *op. cit.*, p.15~6.

31) Soen Eye, *op. cit.*, p.44.

32)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하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최근의 패션 디자인을 택하였다.

1. 초현실주의(Surrealism)

기존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하였던 초현실주의는 복식 조형성의 표현력을 넓히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왔다.

초현실주의는 모순과 대립적인 존재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서로 이웃하고 또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려는 경향을 띠었는데, 즉 현실과는 병존하지 않는 전혀 생소한 미지의 세계 속에 무엇인가의 존재함을 느꼈던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자 과감히 과거의 예술 형식을 탈피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은 때로는 유모러스하고 때로는 부자연스럽기조차 하였는데 초현실주의 회화에서는 비현실적인 형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어떤 정서나 감정, 사고를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 혹은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내용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현실 세계의 메세지는 회화뿐 아니라 모든 조형 예술 분야에 수용되었다.

초현실주의의 회화 기법은 인간의 무한한 무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됨으로써 우연적 계기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또한 비현실적인 이미지 배치에 의한 상상력을 개발시켜 주었으며 조형 예술 전 분야에 그 정신적인 이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Colin McDowell³³⁾도 초현실적인 사고와 그 표현 양식은 복식에 광범위하고도 영속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초현실주의는 일상생활과 보편적인 양식에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에 집중시키는 강조 방법³⁴⁾을 사용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삶이었으며 예술은 그 자체로써 가치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변모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들이 매우 중요시했던 객관적 우연성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현실주의적 조형성은 회화 작가의 작품을 패션 디자인 소재의 문양으로 이용하였던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본격적으로 표현되어 새로운 미의 추구로서 예술 양식이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획일적인 의상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참신한 소재의 예술적인 표현성이 초현실적인 형태와 더불어 혁신적이고 기발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초현실주의 양식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참신하고 독특한 모티브를 제공³⁵⁾함으로써 최신 유행으로 재현되는 의상들이 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상에 도입된 초현실주의의 회화와 이념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패션의 뚜렷한 개성과 흥미, 욕구를 유발시키게 되어 패션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부분적인 것을 위치 변경하거나 전혀 조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왔던 요소들의 결합 그리고 인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거나 과장시켜 표현함으로써 기발한 이미지로 표출되었다.

그림 1-1의 Jean Paul Gaultier의 패션 작품의 소재의 문양에서는 유모러스하면서도 당혹스럽기도 한 반면 지극히 천진스럽기까지 한 이미지를

33) Colin McDowell, op. cit., p.129.

34) Richard Martin, Fashion & Surrealism, Rizzolit FIT, 1987, p.9 (재인용)

35) 최향숙, 초현실주의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숙대 석사논문, 1989, p.49.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Italy Bazaar, 90/ 91

보여 주고 있다.

즉 일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혁신적인 감각의 문양을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하여 오히려 신선한 감각의 영역을 넓혀주고 패션 디자인에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게 한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는 패션 디자인에서 기발하고 독창적인 소재의 응용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림 1-2의 Enrico Coveri의 작품의 소재는 네트와 알미늄과 금속판 그리고 인조 구슬 등으로 어울어진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패션 소재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서 사고를 자극하는 모든 재료들의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재음미하여 응용함으로써 소재의 또 다른 모습을 형성하여 초현실주의의 기발한 상상력을 수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3의 Pour Toi의 패션 작품과 그림 1-4의 Givenchy의 패션 작품에서는 소재의 문양에서 trompe l'oeil 기법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기법이 패션 소재의 문양에 반영되었던 것은 1930년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패션 디자이너인 Elsa Schia-



(그림 1-2) Enrico Coveri, Italy Bazaar,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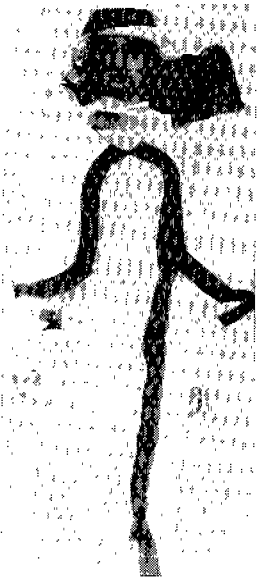
(그림 1-3) Pour Toi, Italy Bazaar, 1991

parelli에 의해서 선보여짐으로써 패션계를 흥분시켰었는데 20세기 후반의 패션 디자인 소재에도 문양으로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초현실주의 양식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의 Issey Miyake의 패션 작품은 소재



(그림 1-4) Givenchy, View, 1996/7 winter



(그림 1-5) Issey Miyake, Italy Bazaar, 1990/ 91

의 질감을 통해서 인체를 다소 과장적으로 해석하여 차가운 느낌의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Issey Miyake는 움직일 수 있는 유기체의 형상을 움직일 수 없는 딱딱한 인공적인 소재감으로 재현시킨 것이다.

초현실적인 왜곡된 인체의 표현은 첨단 기계문명의 발달로 생겨난 인간의 소외감을 극복하여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심리로 부터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초현실주의의 개념 속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고를 자극하는 모든 재료가 도입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 소재에 있어서도 알미늄판이나 철사, 지퍼, 셀로판, 비닐, 금속판 등을 이용한 기발하고 독창적인 소재로써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2. 팝 아트(Pop Art)

팝 아트라는 용어는 원래 대중 문화가 만들어 내는 ‘대중 예술’을 가리키기 위한 명칭이었지만 그 후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 미술’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팝 아트는 당시 문화의 실망과 역겨움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의 소재로써 상업적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36)·37)·38)}

즉 팝 아트는 대중 매체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시대적 풍토를 표현³⁹⁾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사물들인 형상들의 고유한 스타일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다.

특히 팝 아트 작가들은 현대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써 현대인이 비인간화, 비감성화, 비개성화 되어가는 현상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외된 인간성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재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⁴⁰⁾

36) H · W ·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p.749.

37) David Britt,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305.

38) John Russell, The Meaning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p.347.

39)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 Gallery Books, 1988, p.409.

40)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89, p.58.

무엇보다도 팝 아트의 조형적 특성은 상업적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상업 문화 속에서 무한한 소재의 원천을 찾아내었다.^{41)·42)}

팝 아트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은 유모어와 재치가 있는 디자인에서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의 스타일로 추구되었던 점이었는데, 그 조형 요소 중 디자인의 소재에서 문양에 표현된 것을 보면 팝 아트 스타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느낄 수 있는 것들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의 Ella Sing의 패션 작품의 경우 미국 국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응용한 소재의 문양을 통해서 팝 아트의 조형성이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널려있는 통속적인 소재를 패션 디자인 소재의 문양으로 응용함으로써 팝 아트의 새로운 시각을 창출해 내고 있다.

팝 아트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따온 사진이나 광고 그리고 만화, TV화면, 영화, 포스터, 간판, 상표, 교통표시 그 외에 도시를 채색하는 여러가지 사인들으로써 이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현대생활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이미 알려진 기존 이미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팝 아트 작가들은 상품이라는 직접 소비물과 함께 소비되고 있는 기성 이미지들을 소재로 삼았던 것이다.^{43)·44)}

또한 팝 아트 회화 작가의 작품속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영화배우 마릴린 본로의 얼굴 역시 패션 디자인 소재의 문양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Versace의 패션 작품 2-2에서 그러한 조형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회화에서나 패션에서나 모두 대중적인 주제를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로써 사용함으로써 통속



(그림 2-1) Ella Sing, Italy Bazaar, 1991



(그림 2-2) Gianni Versace, Italy Bazaar, 1991

적인 관능미 이상의 것을 팝 아트는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의 Moschino의 패션 작품의 경우 소

41) 高階秀彌, 西洋美術史, 美術出版社, 1991, p.177.

42) H·W & D·J Janson, 유홍준,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2, p.241.

43) 정혜선, 패션에 미친 팝아트의 영향에 관한 연구-구미 패션계를 중심으로-, 홍대 석사논문, 1987, pp.19~20.

44) 임에진, 팝 아트(Pop Art)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이대 석사논문, 1990, p.32.



(그림 2-3) Mochino, Modain, 1993



(그림 2-4) Thierry Mugler, Italy Bazaar, 1992

재의 문양에서는 팝 아트 회화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코믹만화 시리즈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즉 조잡한 만화로 부터 빌려온 스타일이나 대중적이며 싸구려인 흔한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생기발랄함과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팝 아트의 조형적인 면이 패션 디자인 소재의 문양으로 그 흐름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의 Thierry Mugler의 패션 작품의 소재를 보면 미국 화폐인 달러의 통속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요소인 등전을 패션 디자인에서 스커트의 소재로 이용하여 팝 아트의 조형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공간이나 도처에 가장 직접적으로 밀착해 있어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의식되지 않은 것을 패션 디자인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팝 아트의 내적 조형성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향적이라기 보다는 외향적 이미지를 지니는 팝 아트의 조형성은 이처럼 패션 디자인의 소재 자체나 문양으로 통해서 유포와 제치있는 감각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것은 역시 대량소비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팝 아트의 요소가 모든 조형 예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왔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니멀리즘(Minimalism)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했던 조각이나 회화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 삼차원 미술의 형식을 취하는 예술 양식이었다. 특히 당시 미국 화단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추상표현주의가 초자아를 표현하여 관객에 호소하는 입장을 취했고, 팝 아트(Pop Art)가 문명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띠었던 데 반해, 이들은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노력했다.^{45)·46)}

또한 미니멀리즘은 역사주의나 장식주의와 반대의 성격을 띠어 대중의 기호보다 선택된 소수를 위한 수준높은 디자인 감각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지닌 타공간에 비하여 표현의 억제를 지향하고 절제된 간결한 형태 표현으로 모든 사물을 '마

45) Michael Collins, 한영호 외 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 기문당, 1992, p.217.

46)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intice Hall Edition, p.628.

이크로화⁴⁷⁾하는 예술의 극소화 양상을 띠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순수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미술가들에 의해서 선도되었고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예술 동향이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하나의 인식론적 입방체를 도입시켰는데, 이것은 명백함과 개념상의 엄격함, 꼼꼼함 그리고 단순성에 대한 전념을 뜻하는 것이었다.⁴⁸⁾ 그들은 입방체를 무한으로 활용하면서 완벽한 균형감을 전달하였고, 마치 별들이 그들의 궤도를 지키는 것처럼 엄밀하게 구획된 바탕면으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는 시각적 대칭을 제작했다.

이러한 미니멀 아트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성은 이미 1960년대 패션 디자인의 실루엣이나 소재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표출되어 나타났다. 즉 젊음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60년대의 사회분위기는 라이크라 등의 가볍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 의복을 피부에 밀착시킴으로써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롭고 경쾌한 복식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중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순수성의 추구가 소재라는 조형 요소를 통하여 인체의 순수성 추구로 이어졌다는 선행연구⁴⁹⁾에서도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60년대 이전과는 이질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미니멀 아트의 예술적 배경에 함축되어 있던 조형성은 패션 디자인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도 색다른 감각으로 도입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그 시기의 의상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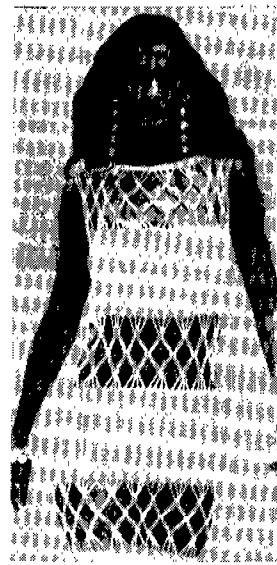
최근의 패션에 있어서도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심플한 디자인을 취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성, 명료성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무표정, 무감각한 조형성을 창출함으

로써 이미지의 표현을 절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복식에 있어서 최소표현 기법을 적용한 조형적 단순성을 디자인 요소인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최소화와 제작과정의 선택 등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음은 선행연구⁵⁰⁾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고찰이 되었는데, 그러한 예술 양식의 조형성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재를 통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추구를 위해 니트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한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최소한의 표현으로써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소재 등을 응용한 경우 등에서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바로 그림 3-1의 Laura Biagiotti의 패션 작품을 보면 니트 소재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조형성이 배제된 가장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Laura Biagiotti, Italy Bazaar, 1991

47)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4, p.154.

48) Nicos Stangos, 寶木能義 譯, 20世紀美術, PARCO出版, 1985, p.250.

49) 김은덕, op. cit., p.35.

50) Ibid., p.27.

또한 선행연구⁵¹⁾에 의하면 미니멀리즘의 조형적인 측면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표면재질을 의미하고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얇은 직물을 인체에 밀착시키거나 비치는 직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자연스런 외곽선을 그대로 노출시켜 인체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는데, 그림 3-2의 Nick Coleman의 패션 작품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을 소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

즉 소재를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여 무장식의 단순한 조형성으로 작품의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감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변형이 없는 매끈한 표면재질을 표출함으로써 미니멀리



(그림 3-2) Nick Coleman, Italy Bazaar, 1991

즘의 특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의 Laura Biagiotti의 패션 작품에서도 그림 3-1과 마찬가지로 장식성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니트 소재의 초미니 원피스를 통해서 의상으로써의 최소한의 조형적인 측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단순함 질감의 소재로써 미니멀 아트의 내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패션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한 디자인에서 소재의 단순한 이미지로 인해서 응축되어 있는 순수



(그림 3-3) Laura Biagiotti, Italy Bazaar, 1992



(그림 3-4) Gianni Versace, 1996/ 97 winter

한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조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에 있어서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하나의 소재를 단순한 형태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련의 반복되는 동일한 기본 단위들로써 구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기하학적인 이미지로써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의 Gianni Versace의 작품의 경우도

51) Ibid., p.30.

질감이 지극히 단조로운 두 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를 반복시켜 구성한 패션 디자인이다. 즉 소재에서 장식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상의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에로티시즘(Eroticism)

에로티시즘(Eroticism)이란 생물로서의 인간이 본능적인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한 본질적으로 심리적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에로티시즘은 인간 본래의 감각과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에 관한 모든 분야에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예술 분야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많은 연구^{52)·53)·54)·55)·56)}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복식과 관련된 연구^{57)·58)·59)}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과거에는 성(性) 본능이 문화와 관습에 의하여 억압되고 억제되었으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성의 본질이 사회제도와 문화의 하위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능가하는 정신세계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문화 발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인간이 성(性)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것으로 볼 때 성은 긍정적인 가치로써 우리의 사회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예술에 있어서 '에로틱'이라는 명제가 붙으면 그 작품은 질이 낮은 저속한 것이나 불량품 등으로 대모되기도 하였으나 에로티시즘은 성욕,

애욕 그 자체가 아니고 애욕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유발시키기도 하며 표현하기도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성이 감정적 측면인데 반해 에로티시즘은 성의 객관적 측면⁶⁰⁾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활동이 인류의 보편적 속성인 한 에로티시즘이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 성애의 문제를 에로티시즘의 개념과 혼돈한 채 모든 것을 섹스로 귀결시켜 도덕적인 비판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로써 에로티시즘은 재평가되고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에로티시즘은 궁극적으로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며 발전과 직관력의 잠재적 원천이 되고 있으며 역시 예술가를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여성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은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고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인간의 감각에 따라 에로티시즘의 표현 형태는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다른 어떤 근본적인 특성에 못지 않는 본질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인류가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복식을 통한 신체의 노출도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움 추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관능적인 가능성들의 증대와 전 신체의 성

52) 장명규, 예술로써 표현되는 性의 양태와 의미-미술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86.

53) 박동수, S·Freud에 있어서의 에로스과 예술, 홍대 석사논문, 1989.

54) 양희분, 에로티시즘 회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표출, 충남대 석사논문, 1992.

55) 노숙경, 현대 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2.

56) 신원섭, 초현실주의 회화에 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홍대 석사논문, 1983.

57) 전해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대 박사논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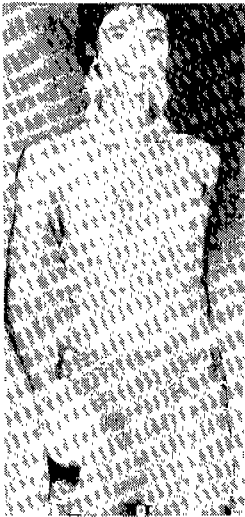
58) 남후남, 패션 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노출에 관한 고찰, 홍대 석사논문, 1992.

59) 함정도, 실내 디자인과 에로티시즘, 기문당, 1993, p.32.

60) 김덕자,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 1989, p.62.

기화, 그리고 신선한 유혹, 새로운 자극과 만족을 표현하고자 소재의 질감이나 문양을 이용하여 표출되었다.

그림 4-1의 Paco Rabanne의 패션 디자인 작품에서 보면 반투명의 메탈 소재를 이용하여 인체를 은밀하게 드러내는 관능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길옷의 질감을 통해서 속옷이 비치게 함으로써 성적 부위를 강조하여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그림 4-1) Paco Rabanne, Italy Bazaar, 1991

마찬가지로 그림 4-2의 Dolce & Gabbana의 패션 작품에서는 레이스 소재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문양 사이사이로 속옷이 드러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 부위를 장식함으로써 강조하는 것과 신체의 부분 노출은 에로티시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재의 질감이나 문양을 이용하여 관능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인에서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연상을 유발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비치는 소재를 통해서 보이는 인체가 성적 부위가 아니어도 성적 연상을 관련지을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으며 소재의 문양으로 은근히 가려져 있는 부분은 소재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초월



(그림 4-2) Dolce & Gabbana, 한국판 Vague, 1996



(그림 4-3) Katharine Hamnett, Italy Bazaar, 1991

한 성적 연상의 심리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4-3의 Katharine Hamnett의 패션 작품에서 이러한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느낄 수가 있다.

즉 현대 패션 디자인을 보면 이러한 반투명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완전 노출 보다는 은밀함을 느끼게 하여 관능성을 표현하는 효과를 자아내고



(그림 4-4) Manuel Pina, Italy Bazaar, 1991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림 4-4의 Manuel Pina의 패션 작품에서는 기상천외한 소재를 이용하여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다. 패션에 있어서 관능적인 분위기는 미니 스커트나 핫팬츠와 같은 신체노출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소재 자

체가 가지는 질감의 특성으로 인해 강한 시각적인 힘이 관능성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소재로 인하여 자극적이지도 노골적이지고 않으면서 미묘한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 아주 먼 원시시대부터 예술의 소재가 되어 왔으며 현대에서는 소재산업의 놀랄만한 발전으로 인하여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함축하고 있는 수많은 소재들이 현대 패션 디자인을 통하여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V.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는 소재의 조형적 분석

IV장에서는 최근의 패션 작품을 선정하여 일체적인 복식 형태로서 응용된 소재를 통해서 예술적 조형성을 살펴보았는데, V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의 패션 작품에 응용되고 있는 소재만의 조형적 분석을 본 연구에서 고찰한 네 가지 예술양식 측면에서 분석표를 만들어 비교·고찰하였다.

특성	소 재	문 양	색 상	조형적 특성
초현실주의	셀로판, 유리섬유, 금속, 종이, 가죽, 알루미늄, 플라스틱, 스팅글, 깃털, 보리짚, 비닐코팅, 소재, 에나멜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현실주의 회화작품을 그대로 문양으로 이용하는 것 *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지나 형태가 왜곡된 것, 불가사의한 형상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백의 강한 대비 * 강렬한 색상 * 원색의 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인 전위적인 감각으로 표현됨 * 유머러스하고 비논리적이며 악몽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됨
팝아트	여러가지 질감의 합성섬유, 유리, 금속 조각, 인조가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극히 일상적이며 통속적인 것을 주제로 단순한 구성에 따라 사실적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명한 색으로 대조된 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만물을 기하학적 무늬로 사용함으로써 통속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
미니멀리즘	직물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순한 질의 소재, 얇고 투명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양의 수를 최소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색 사용 (무채색, 원색, 자연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성, 명료성, 대칭적인 요소를 특성으로 표현함
에로티시즘	광택지, 투명·반투명(see-through직물), 레이스, 니트, 네트지, 신축성 있는 소재, 광택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부위가 의도적으로 노출되도록 문양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색상은 없으며, 모든 색상이 응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조형성을 표현함 * 비닐 코팅이나 에나멜 등의 신소재 사용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美로써 에로틱한 이미지 표현함

VI. 결 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중요성은 소재 그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단지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이 아니라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데 비중있는 역할을 하게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소재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소재들은 디자인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 규범의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외형의 표현 자체가 다양화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패션 소재 자체에 함축된 내적 의미를 통하여 예술 양식의 조형적 측면을 분석·고찰하였다.

즉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간의 정신 세계와 새로운 생활 양식은 패션 디자인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표출되게끔 하였으며 복식에 있어서 '탈과거'라는 의미는 기능적이고 틀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스타일들의 등장으로써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패션 디자인 소재는 새로운 복식미 표현에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써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재 자체가 지니는 질감이나 문양을 통해서 예술 양식의 조형성을 표출해 냄으로써 패션의 예술화, 패션의 생활화, 예술의 대중화라는 의미가 한낱 걸치레가 아닌 현 생활에서 일체화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 응용된 소재의 질감이나 문양에서는 20세기의 수많은 예술 양식의 조형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조형성을 다음의 예술 양식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를 통해서 표현된 초현실주의의 조형성을 보면, 일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혁신적인 이미지의 문양을 가진 소재의 응용이나 기존의 패션 소재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재료를 의상 소재로 이용한 점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

즉 패션 소재를 통한 새롭고 현대적인 미의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기발한 소재의 응용과 흥미로운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패션 소재에 표출된 팝 아트의 조형성은 상업 문화와 밀접한 이미지를 문양으로 표현하거나 재료로 이용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주변에 흔히 널려있는 통속적인 소재를 패션 소재의 문양으로 응용하거나 유묘어와 재치가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인 소재 자체로 재구성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근의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표현을 위해 단순한 표면재질의 소재를 이용하여 무장식의 단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패션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넷째 먼 원시시대부터 예술의 소재가 되어왔던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은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관능적인 가능성들의 종대와 전 신체의 성기화 그리고 신선한 유희, 새로운 자극과 만족을 표현하고자 소재의 질감이나 문양을 이용하여 표출되었다. 이것은 비치는 소재나 소재의 문양으로 성적 부위를 강조하거나 신체의 부분 노출 등으로 에로티시즘의 조형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예술 양식과 관련된 소재의 경우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들이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여러가지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식이라는 3차원의 형태에 이용된 소재들에서 표현되었던 조형적 특성들은 마찬가지로 소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미지 표출이 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즉 우주 시대의 새로운 정보 속에서 패션은 개성화와 차별화를 수반함과 동시에 예술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패션 디자

인에 있어서 소재의 중요성은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

1. Bailey Adrian, The Passion for Fashion, Dragon's world, 1988
2. Colin McDowell, Directory of 20th Century Fashion, Frederick Muller, 1984
3. David Britt,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4.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20th Century Fashion, Guinness Suprtlatives Limited, 1981
5. Diana de Marly,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Batsford, 1986
6.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Batsford, 1986
7. H · W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8. John Russell, The Meaning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1989
9.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intice Hall Edition, 1988
10. Julian Robinson, The Fine Art of Fashion, Bartler & Jensen, 1987
11.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Fairchild, 1990
12.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Bastford, 1986
13. Richard Martin, Fashion & Surrealism, Rizzolit FIT, 1987
14. Vittorio Sgarbi, The History of Art, Gallery Books, 1988
15. 高階秀彌, 西洋美術史, 美術出版社, 1991
16. 横川公子, 服飾表現の位相, 昭和堂, 1992
17. Soen Eye, 文化出版局, 1994, 6
18. H · W & D · J Janson, 유홍준,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2
19. Michael Collins, 한영호 외 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 기문당, 1992
20. Nicos Stangos, 寶木範義 譯, 20世紀美術, PARCO出版, 1985
21. 김덕자,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 1989
22.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89
2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8
24.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4
25. 함정도, 실내 디자인과 에로티시즘, 기문당, 1993
26. 김은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27. 김경옥, 현대 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28.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29. 김정애,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테크노 사이버 패션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5
30.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5
31.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대 석사논문, 1986
32. 남후남, 패션 디자인에 표현되는 여성의 인체 노출에 관한 고찰, 홍대 석사논문, 1992
33. 노정심,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34. 노숙경, 현대 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2
35.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대 석사논문, 1989
36. 박동수, S · Freud에 있어서의 에로스와 예술, 홍대 석사논문, 1989
37. 박미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See-Through 양식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3
38.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성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4

39. 신원섭, 초현실주의 회화에 관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홍대 석사논문, 1983
40. 양희분, 에로티시즘 회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의 표출, 충남대 석사논문, 1992
41.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미야케 이세이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91
42. 이선화, 20세기 전반기의 회화를 활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92
43. 임애진, 팝 아트(Pop Art)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이대 석사논문, 1990
44. 장명규, 예술로써 표현되는 性의 양태와 의미—미술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86
45. 전혜정, 복식의 에로티시즘 양식, 서울여대 박사논문, 1993
46. 정혜선, 패션에 미친 팝아트의 영향에 관한 연구—구미 패션계를 중심으로—, 홍대 석사논문, 1987
47.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현실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7
48. 최향숙, 초현실주의가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숙대 석사논문,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Artistic Formativeness Represented in the Materials of the Modern Fashion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artistic formativeness represented in the modern fashion design materials.

Nowadays the modern fashion design materials is characterized by variety. The fashion materials, the most important of fashion, is called a softwear in textile industry

and emerged as a new field.

Fashion design also escaped from the traditional restraint and extended to pursue liberal clothes and the designer's creative intention has resulted in conceptual and conventional alteration as a new mode of plastic expression.

As a results of analysis of the formative feature of Art style represented in the modern fashion design materials.

First, Surrealism had been searching for a new way of confronting a social and artistic environment that was stifling and repugnant to them. Accordingly, the wide application of the various object due to the thought of Surrealism through the modern fashion materials brought the diver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of the modern fashion design.

Second, Pop Art that is made modern mechanic culture and commercialism brought the great 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Art out of the existing style and the sense of expression. And the plastic characteristics of Pop Art that has a gravity as modern fashion materials on a them of the elements of popular consumer's society.

That is, the common and cheap objects were introduced into fashion materials itself or pattern.

Third, Minimalism is a trend in art attempting to seek essence of the object by presenting simple and disciplined expressions by minimal formative means. The features of external form are simplicity, clarity, unrelated composition and symmetrical structure. Minimalism was a quest for basic elements representing the fundamental esthetic values of art.

The minimal expression in modern fashion

materials mean fabrics with simple surface and is contained using simple geometric pattern or utilizing textiles without any patterns.

Fourth, Eroticism is a kind of psychological revolution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and is deeply rooted in the cultural tradition of myth, religion, customs and art. So Eroticism must be distinguished from a mere animal reproduction. These erotic characteristics were holded the meanings of sexuality through the modern fashion materials.

Especially it was expressed the sexual part

of body was nakedly showed through transparent materials or semitransparent like metallic and opaque materials.

Recently the various kinds of new materials such as paper, vinyle, plastic, metal as well as human body were applied to new fashion design. First of all, the new materials will give modern fashion designers stimuli and inspiration. It can also express values of moderners to despise materialism and uniformed modern society and to recover humanity and self-actualization.